

“광양만권 통합 주민 여론 수렴부터”

3개 지자체 시장 공동합의문 발표...광양 시민들 반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3개시(여수·순천·광양) 통합을 위해 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등 밑그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순천·광양시 등 전남 광양만권 3개 지자체 시장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제시한 통합 인센티브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등 3개항의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본격 발표했다.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해 여수시와 순천시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광양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부 광양시민들은 이성용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두 시장의 요구에 밀려 합의문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일부 지도층은 시민들이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을 향한 다양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삼부론 통합은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광양시가 인근시의 대의명분과 밀려 목소리도 제대로 못내고 흡수 통합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것'이라며 강한 거부

감을 나타냈다. 광양시의회 A 의원은 "이번 회동은 광양시장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시장은 시의회가 지난 6월 공식 성명으로 발표한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통합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회동으로 시의회와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번 3개시 통합 발표문은 통합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지 여수·순천·광양의 통합에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양시는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와 교통세 등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된 이후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한 간부는 "광양만권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통합 범위를 여수·순천·광양·구례·하동·남해 등 광양만권을 중심으로한 광역 경제권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태풍 '루사' 극복 기념관 건립

지난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상황과 복구과정을 전시한 기념관이 광양에 문을 열었다.

광양시는 지난날 31일 옥룡면 덕천마을 하천섬에 '태풍 루사 피해 극복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옥룡주민들은 이성용 광양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념관은 지난 1930년 건축된 돌집을 리모델링해 당시 피해·복구상황을 동영상과 현장사진으로 재현하고 당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을 전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2년 8월 31일 내습한 태풍 '루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규모가 커진 하천섬은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조성해 휴양지로서 각광받을 전망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7년전 루사에 대한 당시의 피해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전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사의 체험현장으로 발전시키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념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새마을운동 구례군지회(회장 김우길)는 1일 구례를 서서천면 주차장 일원에서 관내 8개 읍·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이날 총 30t의 폐자원을 수거·판매한 수익금 400만원을 연말 불우 이웃들에게 사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권 민간에 위탁

여수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권이 1일부터 민간에 위탁됐다.

여수시는 1일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 분뇨 전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5종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인 ㈜태영엔텍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위탁기간은 이날부터 10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47억7천700만원이

다. 여수시는 민간회사의 축적된 전문기술력을 이용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경우 원가 절감 등 운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왔다.

여수시는 이들 시설을 시가 직접할 때 연간 52억원이 소요됐으나 이번 위탁으로 연 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인동산일부동산
☎(代)223-1140, 5210 벨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은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실감있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반값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85억)
- 보증337억/월세3,300만원 용적12%
- 토지1200평 건물2,500평(매가90억)
- 보증37억/월세8,000만원(용적50%)
- 토지590평 건물750평(매가98억)
- 보증340억/월세2,000만원 용적12%

▶**토지**

- (상무지구 상업지역)
- (화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250평)-매가 220,000,000원 (골ymp에스 구장과 대가학스 중간사커리키오)
- 611㎡(185평)-매당 880만원
- 1650㎡(500평)-매당 1,200만원 (상무우리들영원주변)

▶**기타용도**

- (용적)73,000㎡(2면2중) 평당 10만원(동산등)가부채로 좋은곳
- (특제)상가용 약 3000평 평당 300만원-고교고주변(매트,석장 등 지역)

▶**호실/모텔**

- 상무지구 상업지역 호원 모텔 다수있음 현금 20억 투자 1부 이상 수익률 가능함
- 매가 40억 40억 투자 1부 이상 수익률 가능함
- (특제)상가용 약 3000평 평당 300만원-고교고주변(매트,석장 등 지역)

▶**상가 매매(상무지구, 상무역사이드)**

- 매가 1500(99평) 매가 4200 4200만원 개발가능 있음, 학원, 주차, 사무실 등 복합
- 새정아울렛 주변 역세권상가 있음 대형 의무제강 가능 상가 전매 상가 가능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찾아 드립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십시오.

부동산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대지

* **경매 예정 진행 부동산 상담***
(금융권 개인 채권 합의 및 대환)

*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상담***
(현 시세가 15-50% 할인 매물)

* **부동산 담보 채권 투자 상담***
(천만원 투자 시 월 30만원 수익)

금호부동산컨설턴트
TEL 224-5959, FAX 223-5151
010-2831-1733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5억/매매가11억
▶대지300평건물450p보증금1억5천20m도로점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35m도로점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현재현의원경영중대130p건230p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상업지역땅약95p
▶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30m 도로 점 남해비더가 700,000p 임야 140억, 골프장 태양광

32억월당금매
▶대 200p 건 450p 보 8억월 월2350만원 월 용 13억포함
▶관리지역12억

간경가45억매매가24억5천
▶법정금매대지500평건물1000p지하1층, 지상5층전체공실

월순주유소금매
▶대 600p 세차시설 컨테이너 주유기 12대 매 12억 용자 6억포함
▶9500p 현재 활로방 창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월순,월세,요양원,별장부지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증금 20억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장성염야사슴목장,별장 100,000p 4억7천
▶장성포지적합한대 600p 7000만원

원룸매매
▶계림동플러스대115p,건200p보증금1억,월세425만원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경매전문회사 (주)호남경매컨설팅
☎ (062)228-6600
☎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 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인찰가 제시
-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전금 대출안선(낙찰가의 50%~80%)
- ▶소유주, 입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마늘쫘 없는 초영마늘 재배 확대

고흥군 4개면 11ha 증식포 설치

마늘쫘가 나오지 않는 신품종 '초영마늘'(사진)이 고흥에 확대 보급된다.

고흥군은 도덕면 등 4개면 11ha에 초영마늘 증식포를 설치, 2010년에는 50ha 단지를 조성해 브랜드화하고 2013년까지 800ha로 확대재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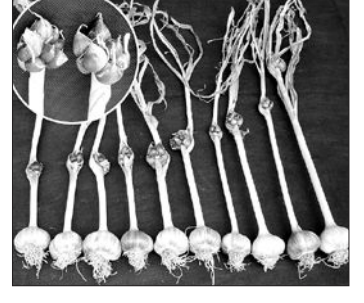
이에 맞춰 고흥 마늘재배 농가들도 지난달 27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영마늘 연구회 과제교육 및 창립총회(회장 신이수)를 가졌다.

초영마늘은 전남도 농업기술원 이아성 연구사가 지난 2006년 고흥 토종마늘에 돌연변이 유전원을 처리해 육종한 신품종 마늘이다.

마늘 구를 키우기 위해 종대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고흥 토종마늘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메고 아린 맛이 적고 맛이 순해 생마늘로 먹기도 좋다.

신 이수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 간 재배기술 정보교환과 초영마늘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iu@



2만㎡ 목화밭서 옛 향수에 빠져보세요

곡성군 12~13일 견면 목화축제

“목화와 함께 그리운 옛 향수를 느껴봐요”

“제 8회 견면 목화축제”가 오는 12·13일 곡성군 견면 목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시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농촌의 옛 정취를 살리고 목화종자 파종부터 재배, 생산, 목화 솎 타기의 과정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2만㎡ 규모의 목화밭이 조성됐으며 6.5km 길이의 견면전 제방에는 조롱박, 아몬 등 15종의 토속 농작물과 흥련, 금낭화, 부용화 등 20여종의 야생화를 심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화 전시관 관람을 비롯해 축하쇼, 열린 음악회, 심청 마당극, 중국기예단 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도전열전 등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곡성군 견면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볼거리와 배울거리, 체험거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가 볼만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여수해경 해양 비리 척결 나섰다

연말까지 이권 개입·금품수수 등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양개발 사업 등 해양과 관련한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해경은 “해양과 관련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토착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선 감척 및 어업권 피해 보상 관련 비리 행위, 어촌·어항개발 지원금 및 시설비 지원금 등 공적자금 편취 행위, 항만공사·방조제, 선착장 등 공사 수주 관련 금품수수 및 토착세력 동원 이권 개입 행위 등이다.

또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업체들의 인·허가, 검사 관련 금품수수나 청탁행위도 포함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공적자금, 권력형 토착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고, 정보 기능과 일선 파출소와 출장소 경찰관 등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배경은 그동안 사법 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해양 관련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권력형 토착비리 근절을 천명하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광양제철소 로봇 이용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강판 인장시험 설비 자동화’에 성공했다.

“자동차강판 전용 인장시험 설비”는 소재입고부터 시험 완료까지 해내는 완벽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2대의 로봇을 중심으로 바코드 기록과 인식,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 인장시험 등 자동화를 위한 각종 신기술을 접목했다.

광양제철소 안병식 설비부문 부소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고객이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봇시대의 고도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